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경 재외동포청</b> <b>인천 설치 확정!</b>	
		배포일자	2023년 5월 24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아동정책과	담 당 자	• 아동돌봄팀장 • 담당자	박희영 ☎440-2856 한유진 ☎440-2859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43,000여 개소로 대폭 확대, 아동의 선택권 보장

- 인천시, (주)신한카드와 5월 중 아동급식카드 지원사업 협약체결 -
- 기존 업체와의 협약이 종료되는 군·구부터 순차적 시행 -
- 급식카드 가맹점, 기존 4,300여 곳→43,000여 곳으로 대폭 확대 -

인천시가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기존 4,300여 개에서 43,000여 개소로 대폭 확대하며 아동 권익 신장과 선택권 보장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4월 28일 아동급식카드 수행업체로 (주)신한카드를 선정하고 5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주)신한카드와 아동급식카드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 완료 후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8월 기존 업체와의 협약이 완료되는 서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동급식카드는 결식이 우려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아동 개인별로 충전된 카드를 이용해 급식가맹점에서 1식 8,000원 범위로 식사할 수 있다.

그동안 사용하던 급식카드는 점주가 가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가맹률이

낮아 가맹점이 4,300여 곳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편의점, 제과점으로 카드 이용이 편중돼 아동의 영양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급식카드 가맹점이 43,000여 개소로 대폭 확대돼 가맹점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며 결식 우려 아동 8,600여 명이 거주지 주변 가까운 식당에서 다양한 종류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급식카드 운영 방법 개선을 통해 아동이 편리하게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며, “군·구 및 카드 운영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질 높은 급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참고 > 여성가족국 언론브리핑 자료